

# 양현종·이의리·최지민·김유신...마운드 '좌완 부자'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WBC 대표팀 이강철 감독

KIA 신·구 에이스 컨디션 점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장면이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지에 펼쳐졌다.

6일(이하 현지시간) KIA 스프링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김중국 감독과 장정석 단장은 물론 옆 경기장에서 KT 위즈의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이강철 감독까지 겹침을 하게 만든 장면.

KIA는 물론 KBO리그를 대표하는 양현종과 이의리가 나란히 볼펜 피칭을 소화한 것이다. WBC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두 선수의 컨디션은 중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또 KIA의 신·구 에이스는 물론 최지민과 김유신까지 4명의 좌완이 동시에 공을 뿌리면서 김중국 감독도 관심 있게 이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고질적인 좌완 가뭄에 고전했던 KIA는 올 시즌 '좌완 부자'가 됐다.

이날 볼펜 피칭을 한 4명의 선수는 물론 지난 시즌 상무에서 전역해 KIA의 가을 잔치에 큰 기여를 한 김기훈도 선발은 물론 톱릴리프에도 매력적이고, 이준영은 볼펜에서 꾸준한 활약을 하면서 시즌 처음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김대유와 운영철이라는 좌완 '새 얼굴'도 있다.

포수 박동원의 FA 보상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김대유는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볼펜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이번 캠프의 유일한 신인 선수인 운영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빠른 적응력과 습득력 그리고 신인답지 않은 배포로 코칭스태프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없어서' 고민이었던 좌완 투수들이 '넘쳐서' 코칭스태프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치열해진 경쟁, 팀을 대표하는 두 좌완 선발과 나란히 볼펜 피칭을 소화한 두 기대주의 각오도 남다르다.

김유신은 "좌완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열심히 뛰고 있다. 잘해서 시합에서도 많이 던져야 한다"며



KIA 타이거즈의 김유신(왼쪽부터), 양현종, 이의리, 최지민 등 좌완 투수들이 6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볼펜피칭을 끝낸 뒤 견제훈련을 위해 모여있다.

## 양현종 "오늘 공도 밸런스도 좋았다" 한승택 "공 적응 중...캐칭 불안 미안"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이 2023시즌을 위해 기지개를 켜다.

양현종은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이번 스프링캠프 첫 볼펜 피칭을 소화했다. 볼펜 마운드에 처음 오른 양현종은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이날 공을 받은 한승택은 볼펜 피칭이 끝난 뒤 "오늘 내 캐칭이 별로 안 좋아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다.

캠프 초반이라 한승택도 투수들 공에 적응하는 중인데다 예상 보다 양현종의 공이 좋았기 때문이다.

한승택은 "그동안 캠프 첫날, 초반했을 때보다는 (WBC) 대표팀도 있고 현종이 형이 몸을 좀 더 빨리 올린 것 같다. 불이 너무 좋았는데 나도 이제 피칭을 두 번째 받는 것이라서 내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항상 (시즌에) 공을 많이 던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이 시기에 현종이 형이 피칭 안 들어가는 데 불도 생각보다는 더 빨리 올라온 느낌이다"고 밝혔다.

공을 던진 양현종도 "오늘 나쁘지 않았다. 밸런스도 좋았다. 밸런스와 그냥 볼 가는 것만 신경 썼는데 나쁘지 않게 잘 던 것 같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WBC 출전을 위해 캠프 루틴 보다는 빠르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양현종은 "문제 없다"며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양현종은 "일찍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고, 지금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 원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시즌이 순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오른쪽)이 6일 볼펜 피칭을 끝낸 뒤 공을 받은 포수 한승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로울 것 같다"며 "대표팀 뽑힌 것에 대해서도 영광으로 생각한다. 대표팀 끝나고 또 다시 시즌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준비 잘 하면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첫 피칭에서 30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은 서서히 투구수를 올리면서 WBC와 KIA 가을 잔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서게 된다.

양현종은 "앞으로 투구수를 늘려야 할 것 같다. 변화구도 조금 더 정교하게 밸런스 잡아가면서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WBC 한국 약점 '강속구 좌완 투수 상대 타격'

일본 데이터 전문 분석업체

마운드의 중심 김광현·양현종 꼽아

일본의 데이터 전문 분석업체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한국 야구대표팀 약점으로 '강속구 좌완 투수 상대 타격'을 꼽았다.

일본 '데이터 스타디움'은 6일 WBC 우승 후보 분석 기사에서 "일본 대표팀이 한국을 공략할 열쇠는 좌완 투수 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매체는 한국 마운드에 대해 "투수진 중심은 김광현(SSG 랜더스)과 양현종(KIA 타이거즈)이며, 2021년 신인왕 이의리(KIA)와 작년 13승을 거둔 소흥준(kt wiz)까지 장래가 유망한 젊은 투수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마무리 투수로 나설 고우석(LG 트윈스)은 도쿄올림픽 일본과 준결승전 패전 투수가 된 만큼 더욱 강하게 나올 것이다. 고우석에게 배턴을 넘겨줄 투수는 정우영(LG)인데, 사이드에서 시속 150km 넘는 속구 던지는 모습은 임창용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야구대표팀을 맡은 '투수 조련사' 이강철 감독에 대해서도 "투구 수 제한이 있는 WBC는 볼펜 운용이 중요한 전술이며, 숙련된 투수 기용에 정평이 나 있다"고 경계했다.

유격수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2루수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결성할 키스톤 콤비도 "대회 출전 팀 가운데 손꼽는 수비력"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정후(키움 히어로즈)를 경계 대상 1호로 꼽을 정도로 한국 야구에 대해 폭넓은 분석을 이어간 매체는 한국전에서 강속구 좌완 투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프리미어12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우완 상대 타율은 0.260, 좌완 상대 타율은 0.183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좌완 상대 타율 3할을 넘긴 이정후도 도쿄올림픽에서는 왼손 투수를 만나서 1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일본 대표팀에는 이마나가 쇼타(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 마쓰이 유키(라쿠렌 골든아글스), 다카하시 게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사령탑을 맡은 프로야구 kt wiz 이강철 감독이 지난달 2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야쿠르트) 등 시속 150km가 넘는 왼손 투수 기용이 한국전 승부처일 것"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한국과 일본을 B조 2강으로 꼽은 뒤 호주와 중국, 체코가 나머지 팀에 도전한다는 분석을 곁들였다.

/연합뉴스

## 손흥민, 6년 연속 아시아 최고 축구 선수



중국 스포츠 매체 '티탄저우바오' 선정  
이란 타레미 2위·사우디 알 도사리 3위

손흥민(31·토트넘)이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로부터 6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뽑혔다.

중국 티탄저우바오(영문명 타이탄 스포츠)는 6일 손흥민이 '2022 아시아인 골든 글로브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7년부터 6년 연속이자 통산 8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앞서 손흥민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수상했다.

이 상은 티탄저우바오가 프랑스 매체 프랑스풋볼이 시상하는 발롱도르에서 착안해 2013년 제정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소속된 국가나 팀에서 활약하는 선

수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손흥민이 수상하지 못한 2013년에는 혼다 케이스케, 2016년에는 오카자키 신지(이상 일본)가 받았다.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기록한 손흥민은 가장 많은 256점(26.7%)을 받았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득점왕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란 대표팀의 메흐디 타레미(포르투)가 120점(12.5%)으로 2위를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렘 알 도사리(리야드)가 112점(11.7%)으로 3위에 올랐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나폴리)는 99점을 받아 4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톱 10' 안에 2명이 포함됐다. /연합뉴스